

HONG KONG  
C H I N A  
I N D I A  
K O R E A

# Philippe Jordan

11



  
**JAEGER-LECOULTRE**

Open a whole new world

Geophysic Universal Time watch

Philippe Jordan, Chief Conductor and  
Music Director in Paris and Vienna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 수줍지만 잘나가는 다카노 아야



가을비가 촉촉이 대기를 적신 10월 2일, 부산 달맞이고개에 위치한 조현화랑에서는 일본 만가와 SF 소설적 세계관 그리고 에로티즘을 주축으로 작업하는 다카노 아야의 개인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소수의 언론 매체 만 초대해 작가와의 런치를 마련한 조현화랑의 주민영 실장은 "지난 25년간 조현화랑은 박서보, 정창섭, 윤희근, 김창열, 안두진, 베르나르 프리즈, 필리프 코네 같은 추상미술 작가의 작품이 주축이 된 현대미술을 소개해 왔는데 그런 점에서 다카노 아야의 개인전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만화와 회화의 경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 다카노 아야는 일본 팝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카이카이키키 스튜디오와 프랑스 에마누엘 페로탱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유럽에서는 2003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세계적 컬렉터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주로 소녀(기자회견에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소녀'일 수도, '소년'일 수도 있다고 했다)를 모티브로 한 밝고 몽환적이며 에로틱한 일러스트가 특징이다. 그녀의 최근 전시를 보면 전시회를 연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번엔 부산이 그 주인공이다. "작업을 위해 수차례 부산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느낌이 참 좋아요. 제가 만난 부산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밝고 쾌활했어요. 그런 느낌을 제 작품의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개, 고양이, 고래, 문어 등이 자유롭게 공간을 뛰노는 비정형 구도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 세로 2m, 가로 6m의 대형 회화 작품 1점과 작년 부산을 방문했을 때 얻은 영감을 토대로 작업한 신작 15점이다. 그녀는 또한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이후 새로운 작업관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다. "과거에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듯한 주인공을 내세우고 전체적 묘사도 좀 더 에로틱했는데, 대지진 이후에는 신화적 판타지가 강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기존엔 아크릴 물감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유기적 느낌이 강한 헴프 오일(대마유) 식물성 물감을 사용하고 있죠." 그 덕분에 이번 신작은 풍부하고 섬세한 특유의 색채 사용이 돋보일 뿐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 프레스코화를 연상시키듯 한층 밝아진 점이 눈에 띈다. 갤러리와 옥션 미술 시장에서 모두 인기가 높은 그녀가 보여주는 초현실적 세상과 조우하는 잔잔한 기쁨을 한적한 부산의 달맞이고개에서 누려보는 건 어떨까? 전시는 11월 22일까지. 문의 051-747-8853

### 하종현의 흔적

"지난여름, 바깥에 나올 시간도 없이 작업에만 매진했어요." 국제갤러리 K에 하종현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마대를 비집고 나온 물감에 연기를 썩은 새로운 작



작품 설명 중인 하종현 작가

품의 색 조합처럼 짙은 회색 정장과 검은 셔츠를 갖춰 입은 그가 기자들 앞에서 전시를 소개했다.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하종현의 개인전에서는 그가 50여 년에 걸쳐 작업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단색화 열풍'이라는 단어가 미술계 안팎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요즘, 단색화의 대표 작가로 평가받는 그의 예술 여정을 따라가며 그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좋은 기회였다. 작가는 1970년대부터 마대를 활용해 회화

의 그린다는 행위와 물성을 극대화하는 실험을 이어왔다. 그는 마대의 뒷면에 모노톤 물감을 잔뜩 발라 밀고 앞면에 돌출된 물감 덩어리로 다시 마대 표면에 추상적 질서를 부여하며 '접합(Conjunction)'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기존 회화에 대한 '저항적 태도'로 해석되곤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한국의 휴과 도자기, 기와의 오묘한 색감과 질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뉴욕 티나 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앞둔 그의 창작열은 오늘도 뜨겁다.



린 티안미아오, 'More or Less the Same'

### 아시아 여성 미술의 현재는?

페미니즘의 담론이 확장되고 있는 요즘, 서울시립미술관(SeMA)이 전시를 통한 새로운 담론을 제안했다. 페미니즘 시각에서 동아시아 여성 미술의 현재와 그 의미를 살펴보는 <동아시아 페미니즘: 판타시아>전은 '판타지'와 '아시아'의 합성어 '판타시아'를 제목으로 내세우며 아시아와 여성의 최근 미술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을 모았다. 강애란, 이진주, 정금형, 함경아 등 한국 작가를 비롯해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총 7개국의 작가 14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정금형 작가의 퍼포먼스, 현실문화연구와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라운드 테이블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계 행사도 개최했다. 전시는 11월 8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2-2124-8946